

## 전기차 배터리 기술침해 갈등 격화 SK이노, LG화학에 맞소송

근거없는 비난, 더는 묵과할수 없어  
명예훼손으로 10억 손해배상 청구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전기차 동차 배터리 기술침해 소송이 맞소송 사태로 번졌다. 피소당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근거 없는 소송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 규모의 맞소송을 낸 것.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5월 LG화학의 소송 제기 직후 SK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력을 빼 온 것이 아니라 지원자 스스로가 이직을 선택한 것이며 정당한 영업활동이었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 해온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LG화학의 이번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경쟁사는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면서 지금이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LG화학은 서울중앙지법에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권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특허심판원도, 2014년 서울중앙지법도 LG화학의 패소를 판결했다.

/양성운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장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연구가 1992년 시작돼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 기아 레이에 공급되는 등 산업을 주도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회사 측은 “이번 법적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유감을 표했다. LG화학 측은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ITC에서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이라며 “근거 없는 발목잡기”라는 표현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G화학은 이번 사안을 용인하면 산업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쟁사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활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 심리가 저해된다는 의미다.

LG화학 측은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면서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 제기된 ITC 소송은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 결정이 났으며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대우조선해양, VR 선원교육시스템 개발

LNG운반선 대상 시스템 시연회  
높은 업무효율과 비용절감 효과

대우조선해양이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선원교육시스템을 개발했다.

대우조선은 선박 건조, 시운전 등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가상현실기술을 융합해 맞춤형 선원교육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완성된 배에 오르지 않고도 처음 다뤄보는 최첨단 장비를 현실처럼 사전에 교육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효율과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이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최근 기술의 진화속도가 가장 빠른 LNG운반선을 대상으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7월 옥포조선소에서 LNG운반선을 발주한 선주사 사장단과 직원들을 초청해 이 시스템의 시연회를 가졌다.

이 시스템은 현실 공간과 동일한 선박내부와 주요 장비들을 360도 파노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가 LNG운반선 선원에게 VR 선원교육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마 가상현실 화면에 구현하고, 선원들이 장비 운전을 위한 준비, 유의사항 및 가동 방법 등을 현실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선주사는 선원들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장비 파손과 잦은 A/S, 장비운전 문의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

## 조현민, 한진칼 전무로 전격 복귀

14개월 만에 한진칼 사옥 출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 맡아  
사회공헌, 신사업 개발 전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을 맡는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조현민 전무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한진칼 사옥 사무실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이른바 ‘물컵 갑질’ 사태 직후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지 약 14개월 만이다.

조 전무는 경영에서 손을 떼기 전까지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로 광고 및 마케팅을 주도했다. 앞으로는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을 맡아 한진그룹의 사회공헌 활동 및 신사업 개발을 전담한다.

조 전무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 딸이며, 조원태 회장의 동생이다. 이번 경영 복귀는 형제간 화합을 강조해 온 선전의 뜻에 따라 결정된 것



조현민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

으로 전해졌다. 한진칼은 조원태 회장과 석태수 사장이 각자 대표를 맡고 있고, 정석기업은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원종승 사장이 대표다.

그룹 측은 “조현민 한진칼 전무 및 정석기업 부사장은 고 조양호 회장의 ‘강력한 유지’를 받들어 형제간 화합을 토대로 그룹의 책임 경영에 나설 예정”이라며 “조 전무는 한진그룹에서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사회공헌 활동 및 신사업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전무는 그룹의 사회공헌활동과

신사업 개발 외에도 부동산과 건물 등 관리 업무를 도맡아 정석기업을 경영하게 된다. 그는 과거에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에서 광고 및 마케팅을 주도했었다.

조 전무는 각종 혐의에 대해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만큼 법적으로 복귀에 문제가 없는 상태다.

한편, 조 전무의 경영 일선 복귀는 한진그룹 상속 및 경영 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3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서울 총회의 마지막 행사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 문제에 대해 “가족들과 많이 협의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도 조 전무의 경영 복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검찰은 조 전무의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LG전자, 시청각장애인용 TV 1.5만대 보급

‘장애인용TV 보급사업’ 공급자 선정  
개발·생산·배송·사후관리까지 맡아

LG전자가 2019년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청각 장애인에 전용 TV 1만5000대를 무료로 전달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방송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에 방송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됐다. 시청자 미디어재단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진행한다.

LG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청각장애인용 TV를 납품하게 됐다. 개발과 생산, 배송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맡는다.

LG전자가 개발한 시청각장애인용



LG전자가 올해에도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에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LG전자

TV는 32인치 풀HD 제품으로, 모델명은 32TL62GHDA.

청각 장애인을 위해 방송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든 말을 자막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탑재했다. 수어 화면이 나오는 방송의 경우 수어 화면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원하는 부분

을 최대 300% 확대해주시기도 한다.

음성 안내 기능도 강화했다. 리모컨에 점자와 양각 버튼을 놓고, 음성 안내 버튼을 누르면 TV의 모든 기능을 음성으로 설명해준다. 음성 종류와 속도, 높낮이 등도 리모컨을 통해 조절 가능하다.

/김재용 기자 juk@

## 처방전 접수부터 결제까지... SKB, 무인 약국시대 연다

약국전용 키오스크 ‘온키오스크’ 출시

SK브로드밴드는 의약품 영업·마케팅회사인 온라인팜과 손잡고 스마트약국 구현을 위한 약국 전용 키오스크 서비스 ‘온키오스크’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온라인팜 양사는 지난해 9월 스마트약국 구현을 위한 키오스크 사업 추진 MOU를 체결한 후 약 8개월에 걸쳐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 약국의 규모와 입지에 따라 모델을 세분화해 A, B, C, D형 등 총 4종을 제공한다. ‘온키오스크’는 처방전 접수, 신용카드 결제, 복약지도 등 약국에서 필요한 전문 프로세스 처리가 가능한 키오스크 서비스다. 약국을 찾은 환자는 온키오



모델들이 ‘온키오스크’ 출시 소식을 알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스크를 통해 약사와 대면하지 않고 바코드, QR코드 등으로 처방전 접수 후 신용카드 약값을 결제해 창구에서 기다리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증상에 맞는 일반적인 복약지도도 받을 수 있다.

온키오스크는 화면에서 한국어외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세계 외국어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

일상적인 업무를 키오스크가 대행해 약사는 전문 복약지도와 건강상담에 집중할 수 있다. 온키오스크를 설치한 약국은 일반의약품은 물론 비타민, 파스 등 약사가 추천하는 의약품도 직접 키오스크 화면에 노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아병원 근처 약국은 어린이들을 위한 비타민제를, 요양병원 근처 약국은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제 등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SK브로드밴드는 온키오스크 설치 시 간단한 재고관리와 매출관리 등이 가능한 POS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해 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